

‘전주미래도시포럼’ 성황리 개최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 주제... 청년·기후·환경·문화 등 다양한 영역 미래상 제시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연 ‘전주미래도시포럼’이 청년과 기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미래상을 제시하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라한호텔에서 열린 전주미래도시포럼이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UCLG ASPAC이 공동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미래도시와 미래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 △전북대학교 특별세션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아낌차게 준비한 △청년미래랩 등에는 총 1천여 명이 동참해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은 모나코 국무장관인 세르주 텔의 기조연설을 통해 시작했다. 한 국가의 경제와 문화, 국방, 환경 등을 다룬 경험을 가진 세르주 텔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도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인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연 ‘전주미래도시포럼’이 청년과 기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미래상을 제시하며 막을 내렸다.

또 포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카, 기후저널리스트 제프 구델 등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전북대학교 백기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민경중, 연세대학교 장동원 교수, LG공간연구소장 안지용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청년미래랩’에서는 기업가, 변호사, HR 전문가, 글로벌기업 임원, 마케팅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각지에서 온 50명의 미래의 주역 청년과 1박 2일간 멘토링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는 전주미래도시포럼 2024를 통해 국제행사로서뿐 아니라 지역과 연계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북대학교 측과 공동개최하고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국제세미나를 행사 기간 동안 개최하며 시와 지역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주미래도시포럼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도시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만의 뉴 타이베이,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페인 빌바오, 캐나다 퀘벡과 더불어 국내도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전주에서 추진하는 포럼과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세르주 텔은 전주미래도시포럼 대부분의 세션에 참여하는 관심을 보이며, “전주는 특별한 도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전주미래도시포럼은 이런 도시와 시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도시들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그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명맥을 이어 왔다면, 이제 전주를 전 세계의 도시들이 모여 미래에 대한 해안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도시들의 글로벌플랫폼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석학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주가 글로벌도시로 나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인권 존중 · 공감 메시지 전달

전주시, 세계인권선언일 맞아 ‘인권공감 문화행사’ 가져

전주시가 인권 존중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었다.

시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맞아 ‘2024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권으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문화 함께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과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기술어린 미술관’의 저자인 이유리 작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이 작가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 예술’을 주제로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 차별 등을 다룬 사례들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예술을 통한 인권의 확산 방법을 모색하며, 관객들에게 인권을 보다 창의적이고 공감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사회에 첫발을 댄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꾸며졌다. 이날 신규공무원들은 △전통매듭 만들기 △모투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인권공감 문화행사 주간’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펼쳐졌다. 그 중 9일 열린 ‘2024 전주시 에너지 전환박람회’에서 기후 위기와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주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서 ‘상호 존중문화 실천 캠페인’이 진행돼,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에 첫발을 댄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꾸며졌다. 이날 신규공무원들은 △전통매듭 만들기 △모투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차도용 블록 포장’ 전문가 특강

온도 저감 효과 크고 내구성 뛰어나지만 철저한 유지 관리 핵심 과제

전주시의회가 13일 차도용 블록 포장의 시사점과 지속 가능한 도로 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김원주(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김정명(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2동)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충청로 차도 블록 포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의 저자이자 서울연구원 재직 중인 박대근 박사는 강연에서 차도 블록 포장의 국내외 시장 사례를 소개했다.

박 박사는 블록 포장 도로가 운전자와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시공 및 관리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들며, 과거 차도 블록 포장에 높은 예산과 긴 공사 기간, 내구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는 차도 블록 포장에 아스팔트보다 온도 저감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이며, 내구성과 미관 개선 효과를 모두 갖춘 포장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시공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반 시설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수립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요구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경로 차도 블록 포장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주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명 의원은 “충경로 차도용 블록 포장은 시공만큼 철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므로 제기되는 안전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화산체육관 지하 주차장,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전주 화산체육관 지하 주차장이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주차장 범죄 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관리 인력 배치 현황과 통합관리실 운영 현황, 비상벨 설치 여부, CCTV 화소, 주차장 조도 등 총 8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점의 80% 이상 충족 시 인증을 부여한다.

화산체육관 지하주차장은 △통합관리실 운영 △비상벨, CCTV, 반사경 설치 △주차관리시스템 △조도 △상황별 대응매뉴얼 등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공단 관리·운영 중인 주차장들에 대해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홍산라이브와 한옥마을2, 비비오 등의 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으며, 체육시설 주차장 중에



서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과 완산 체련공원 주차장이 같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은 ‘셉테드(CPTED) 관점의 맞춤형 범죄예방책이다.

화산체육관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각종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체육시설이다.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호남 유일의 빙상경기장도 있어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주차장을 비롯해 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전 시설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그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익산 금은방서 흥기 위협, 5000만원 금품 들고 뒀 30대 검거

흥기를 소지한 채 금은방으로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금은방에 흥기를 들

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 및 금은방 내 순금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나흘 전인 8일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탐색하거나 피해를 입은 금은방에 같은 날 전화해 “금을 좀 판매하려

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묻는 등 현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A씨는 금은방 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찰나를 노려 금은방으로 침입, 미리 준비한 흥기로 주인을 위협해 귀금속 26점과 금고 내 현금 약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도주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3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의 A씨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한 식자재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교도소 입소 후 지난 2월 29일 가석방으로 나와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